

해외파 합류 벤투호 카타르행 조기 확정 도전

오늘밤 9시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7차전 레바논전 레바논 이기고 UAE가 시리아에 패하면 본선 확정 손흥민·황희찬 빠졌지만 '헤트트릭' 황의조 '든든'

벤투호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7일(이하 한국시간) 밤 9시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시팔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7차전을 치른다. 이어 내달 1일 밤 11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8차전을 소화한다. 이번 중동 2연전에서 벤투호는 카타르행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다. 한국은 A조 6개국 중에서 이란(승점 16·5승 1무)에 이은 조 2위(승점 14·4승 2무)를 달리고 있다. 한국과 3위(승점 6) UAE의 승점 차는 8로 벌어져 있다.

한국이 첫 경기인 레바논전에서 승리하고, UAE가 시리아를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 한국의 본선행이 확정된다. 벤투호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있다. 중동 2연전에 앞서 국내파 위주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 훈련을 소화한 가운데, 전훈 중 유럽팀을 상대로 치른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4점 차 완승을 했다. 아이슬란드를 5-1, 몰도바를 4-0으로 완파해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제 해외파까지 가세한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보르도)와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마인츠) 등 6명의 유럽·중동 리거들을 불러들였다. 비록 부상 중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

버햄프턴)이 빠졌으나, 센터백 김민재부터 허리의 정우영(알사드)·황인범, 최전방의 황의조까지 벤투호 적수 라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부상으로 최종예선 5, 6차전에 나서지 못했던 황의조의 발끝에 시선이 집중된다. 황의조는 이번 대표팀 합류 직전 소속팀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폭발했다. 홈에서 치른 레바논과 2차전(1-0 한국 승)에서 결승골을 넣은 권창훈(김천)의 활약도 기대된다. 권창훈은 아이슬란드, 몰도바와 경기에서 연속 골맛을 봤다. 조 4위(승점 5)에 자리한 레바논은 3위 UAE, 5위(승점 4) 이라크와 치열한 3위 싸움을 벌이고 있어 벤투호를 상대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벤투호로서는 최종예선에서 2골씩을 넣은 공격수 수니 사드, 모하마드 크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레바논과 통산 전적에서 11승 3무 1패로 크게 앞선다. 다만 레바논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팽팽했다.



축구국가대표팀 황의조와 이용이 26일 레바논 베이루트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지훈련지인 터키에 내린 폭설로 이 스타디움 공항이 폐쇄돼 이통에 차질을 빚었던 대표팀은 26일 오전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대표팀은 이스탄불에 있는 다른 공항인 사비하 리켄 공항을 통해 현지시간 25일 밤 11시 15분 레바논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확보, 2시간가량의 비행 끝에 도착했다. 늦은 밤 이동의 피로는 있었지만, 레바논 도착 바로 다음 날 경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은 덜게 됐다. /연합뉴스



승리의 환호

폴란드의 이가 시비웅테크가 26일 호주 멜버른파크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호주오픈 여자 단식 8강에서 에스토니아 카이아 카네피를 상대로 승리를 확정짓고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KBO '가을야구' 참가팀 확대 추진

이르면 올해 새 PS제도 시행 경기운영방식 변경도 검토중

위기론 속에 출범 40주년을 맞은 프로야구가 인기 회복을 위해 '포스트시즌(PS) 참가팀 확대' 등 다양한 팬 서비스 확대 사업을 발표했다. KBO는 지난 25일 2022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팬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THE NEW KBO' 핵심 사업의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BO는 우선 야구팬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PS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5위까지 참여하는 PS의 참가 팀을 확대하고, 경기 운영 방식 변경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KBO는 시즌 개막 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PS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 당장 올 시즌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금조 KBO 사무차장은 "PS까지 아직 시

간이 남은 만큼 개막 전까지 PS 참가팀 확대와 경기 방식 등을 새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PS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BO는 시즌 후반 2연전으로 실시되는 리그 운영 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팬들의 개선 요청이 많은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경기 운영을 위해 '연장전 승부차기 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시작한다. 다만 이미 올 시즌 일정이 발표된 상황이라 2연전 리그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안은 내년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차장은 "이미 올해 정규리그 일정이 발표된 상황이라 2연전을 3연전으로 당장 바꾸기 어렵다"며 "2연전 형식 변화와 연장전 승부차기 도입 등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 다음 시즌 이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역대 최대승 임박...V리그 내일 재개

화려한 춤사위로 울스타전 축제를 즐긴 한국프로배구 V리그 선수들이 다시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인다. 축제는 끝났다. 달콤한 울스타 휴식기를 즐겼던 V리그는 28일부터 정규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팀당 12경기가 남은 상황, 봄 배구를 향한 전력 질주가 펼쳐진다. 여자부 1위 현대건설은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운다. V리그 최초로 단일시즌 2회 10연승의 진기록을 작성한 현대건설은 2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방문 경기를 시작으로 승수 쌓기를 재개한다. 현대건설은 4라운드까지 23승 1패, 승점

68을 쌓았다. 2위 한국도로공사(승점 51·19승 5패)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정규리그 우승을 예약했다. 역대 여자부 최다승과 최다 승점 기록도 곧 경신할 전망이다. V리그 여자부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과 최다 승점 기록은 2012-2013시즌 IBK기업은행이 작성한 25승(5패), 승점 73이다. 현대건설이 28일 흥국생명전, 31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세트스코어 3-0 또는 3-1로 승리하면 승점 74로 IBK기업은행 기록을 넘어선다. 2월 4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면 여자부 최초 '단일시즌 26승 달성'에도 성공한다. /연합뉴스

“공 잡았을 때 기대되는 선수 될 것”

엄지성 “A매치 데뷔골 동기부여” 올 시즌 ‘공격포인트 10개’ 목표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경험한 광주 FC 엄지성(20)이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며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터키 전지 훈련에 소집됐던 엄지성은 지난 15일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 교체투입돼 데뷔전을 치렀고, 경기장에 들어서자 11분만에 팀의 5번째 골을 만들면서 A매치 데뷔골도 신고했다. 지난해 금호고 졸업 후 곧바로 프로에 뛰어들 엄지성은 패기 넘치는 드리블과 슈팅, 정확한 크로스를 앞세워 데뷔시즌 37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지난해 3월 남자 23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됐었고, 올해는 성인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명단에서 탈락, 귀국길에 올랐으나 연령별 대표팀을 월반해 A매치를 경험한 것

은 프로 2년차를 맞는 엄지성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광주FC 동계훈련지인 별교스포츠클럽에 합류한 엄지성은 “훌륭한 형들과 같은 소속으로 훈련도 하고 경기를 치르는 좋은 경험을 했다”며 “A매치라는 큰 무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잘 지켜주고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대표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해봐서 재밌었다. 코칭스태프도 워낙 많고 외국인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계셔서 새로웠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다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동계훈련 준비 잘해서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팀에 보탬이 되고자 공격포인트 10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며 “내가 공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들) 기대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엄지성

남자농구 국가대표 14명 선발

허용(DB), 허훈(kt) 형제와 라건아(KCC) 등 2월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출전할 남자농구 국가대표 14명이 선발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6일 “선수단 체력 안배와 전력 보강을 위해 14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했고, 매 경기 전 진행되는 테크니컬 미팅에서 경기에 나갈 12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현 감독이 이끄는 농구 대표팀은 2월 24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출전한다.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와 A조에 편성된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과 두 차례씩 맞대결해 상위 3위 안에 들면 결선 리그에 진출, C조 1-3위와 다시 리그전을 벌인다.

C조는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인도네시아로 구성됐다. 2023년 FIBA 월드컵 본선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최하며 2023년 8월 개막 예정이다. <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국가대표 명단> ▲감독= 조상현 ▲코치= 김동우 ▲선수= 김선형(SK) 허훈(kt) 이대성(오리온) 허용(DB) 두경민(한국가스공사) 양홍석(kt) 최준용(SK) 전성현(KGC인삼공사) 이우석(현대모비스) 문성곤(KGC인삼공사) 라건아(KCC) 김중규(DB) 이승현(오리온) 여준석(고려대) ▲예비엔트리= 변준형(KGC인삼공사) 이재도(LG) 이정현(오리온) 안영준(SK) 이관희(LG) 송교창(KCC) 강상재(DB) 장재석(현대모비스) 하윤기(kt) 이원석(삼성) /연합뉴스